국가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역

내륙 첨단산업의 전진기지 중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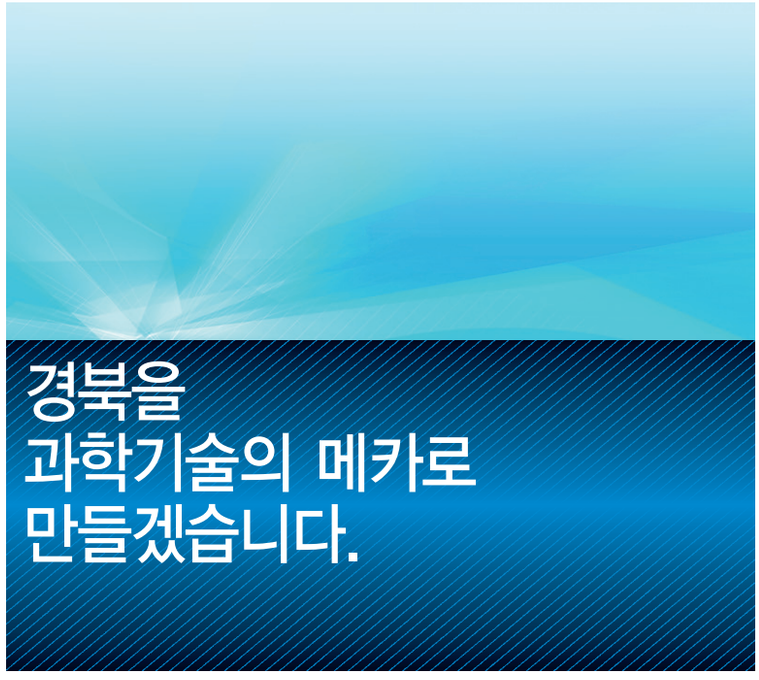
전통과 역사, 문화의 산실

1 동해안권 종합발전대책 추진
2 포항권 환동해 국제항만도시 개발
3 경북 과학기술 TOP 브랜드 프로젝트
4 경북 서남부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5 환동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6 경북 북부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7 신라·가야·유교문화권의 개발
8 경북 영상·문학 특화지구 개발
9 내륙해양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환동해 가치의 보고(寶庫)

경상북도

경북을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동해안권 종합발전대책 추진

환동해 경제권의 성장, 남북교류 확대 등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여 환동해 경제권 중심, 통일국가의 개방적 핵심거점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서해, 환동해, 유라시아 연결 차원에서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권에 대한 발전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지난해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종합계획 수립, 특별법상의 개발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민선 4기 역점시책으로 동해안 해양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국책연구기관(해양수산개발원) 기본계획용역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책공약

동해안권 해양관광개발사업 추진

- 동해안권 해양관광개발사업으로 경주 시랜드, 포항 동빈내항 오션르네상스, 영덕 고래불권 해양레저타운, 울진 다이내믹 오션리조트 등을 지역별 대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동해안 해양크루즈노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의 하와이' 울릉도·독도를 국민관광섬으로 개발하기 위해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울릉항 개발, 일주도로 유보구간 건설, 경비행장 건설 등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개발사업으로 동해안권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개발, 해양·관광문화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립영덕청소년환경센터' 유치 및 건립

- 동해안권 국립기관 유치사업으로 '국립영덕청소년환경센터'를 유치해 건립하겠습니다.

포항권 환동해 국제항만도시 개발

환동해경제권과 U자형 국토균형발전 거점을 선도할 100만 도시 건설차원에서 포항을 중심으로 환동해권 거점항만도시 개발이 필요합니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동해안의 물류개발과 관광·산업·투자·정주여건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영일만항 고속도로 등 접근 SOC 확충

- 환동해권 물류중심 구축을 위해 영일만항 확장·조기 건설(16선석 규모),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 환동해 복합물류기지 및 전용터미널 건립, 영일만항 접속철도, 기계~영일만항 고속도로 등 접근 SOC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영일만항과 호미곶간 영일만 대교와 인공섬을 개발하고 해저관광호텔, 해상공원, 여객터미널, 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해 포항 영일만권을 국제적인 해상도시이자 환동해 중심도시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영일만항과 배후지역의 경제·산업개발을 위해 흥해읍 대련리 일원(5.2km², 157만 평)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개발하겠습니다.

경북 과학기술TOP 브랜드 프로젝트

새 정부의 747 국가발전 전략 중 1%의 추가 잠재성장력을 실현하고 국가경제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전 등 충청권의 기초과학벨트와 함께 포항 등 동남권의 산업친화적인 과학벨트라는 2대 권역의 '과학기술 허브' 조성이 요청됩니다.

앞으로 포항–경주–경산–대구–구미와 울산–창원으로 이어지는 동남권은 우리나라 철강, 신소재, IT, 자동차 부품 등 국가주력산업단지가 입지한 최대의 산업벨트가 될 것입니다. 첨단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친화형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자생력 있는 과학기술기반의 조기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공약

포항 부품소재 R&D특구 지정

- 포항·경주권을 중심으로 구미, 대구, 울산권과 연계되는 국토 동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고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국제 사이언스 빌리지, 막스플랑코 코리아연구소 유치, 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교육단지,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건설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를 조기에 완공하고 주변지역의 양성자가속기 첨단 R&D단지(41만여평) 조성, 1 GeV급 양성자가속기 확장 건설, 포항 부품소재 R&D특구 지정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육성 지원

- 경상북도의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하여 지능로봇, 의료, 에너지·환경 등의 새로운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능로봇 연구개발 및 산업화 콤플렉스 조성, 첨단의료산업 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에너지·환경분야 연구소 유치와 그린오션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서남부권 첨단산업벨트 조성

IT, 기계, 자동차, 철강, 부품소재산업이 국내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와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품소재산업은 동북아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산업으로서 한·일·미 FTA에 대비한 산업기반 유지와 중국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산업분야입니다.

구미, 경산, 경주, 포항 등 7개 시군으로 연결되는 경북 서남부권 첨단산업벨트는 해당 산업의 국내 최대 생산·R&D기지로, 관련 인프라가 풍부합니다. 구체적으로 구미권 IT, 포항권 철강, 울산 자동차·조선, 경남권 기계 등 국가기반 산업망이 연계되어 있으며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의 기본계획용역도 완료('08년 2월)된 상태입니다.

정책공약

세계적 첨단산업벨트 조성

▸ 경북 · 대구 · 경남 · 울산권을 연계한 국가 기간산업망의 중심 거점인 경북 서남부권을 세계적인 첨단산업벨트로 조성하겠습니다.

「모바일산업진흥특별법」 제정

▸ 구미 · 칠곡권을 중심으로 첨단모바일특구를 지정, 개발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종합비즈니스센터, 모바일집적화산업단지 등을 건립,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산업진흥특별법」도 제정하겠습니다.

▸ 경산 · 영천권은 지식복합단지(경산)와 기계－자동차밸리로 조성해 자동차부품 신뢰성 평가 · 인증센터, 자동차 종합디자인센터 등을 건립하고 영천 국가산업단지(200만 평 규모)를 조성하겠습니다.

▸ 권역별 인프라로 한국IT융합기술원, 친환경자동차(ECO-Car) 부품소재개발센터, 에너지부품소재기술원 설립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동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경주, 포항, 울진, 영덕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지역은 국내 최대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지로서 국내 원전 20기 중 10기, 건설 계획 중인 12기 중 8기가 모여 있습니다. 또한 방폐장 건설, 포스코 연료전지 공장, 영덕 풍력단지 등 범국가적인 에너지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환동해권 에너지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권에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가스공사,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가 주요 에너지기관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고, 포항공대 등 에너지 관련 대학, 연구기관, 전문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산업 기반 지역입니다.

정책공약

정부약속 이행 관철

▸ 경주, 포항, 울진, 영덕을 중심으로 동해연안 초광역 국가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육성·「개발지원특별법」 제정, 에너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폐기물에너지 개발 자원화사업, 친환경에너지(가스하이트레이드 등) 개발사업, 국제에너지교류협력사업, 에너지관련 기관 동해안권 이전사업 등 8대 중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도 정부의 약속대로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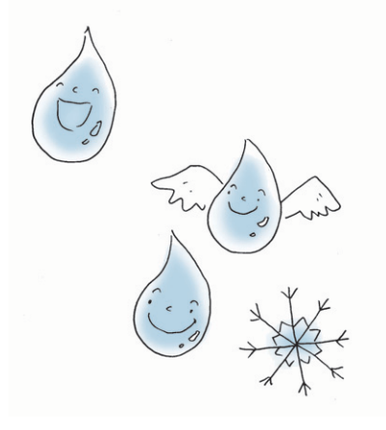
환동해권 해양과학연구클러스터 구축

▸ 동해안 해양자원 개발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여 지질자원연구원 이전, 대륙붕(울릉분지)탐사개발, 울릉·독도 해양관측기지 건설, 동해 전용 종합해양연구선 건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동해분원 건립 등을 통한 환동해권 해양과학연구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북부지역 바이오산업 육성

경북 북부지역은 생물자원의 보고이며, 친환경 농축산업이 발전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 대전, 강원권의 분야별 바이오 산업기반과의 공유, 연계협력도 가능합니다.

또한 생물, 농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은 신기술개발과 시장형성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신개척 분야이자 유망분야입니다. 앞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생물·농업자원을 이용한 친환경 그린-바이오산업벨트를 조성하여, 바이오산업을 FTA에 대응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이자 국가적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유치 등 유관기관 건립 지원

- 낙동강 연안의 바이오생물 특화산업단지와 북부권역 전체에 광역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분원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 생명·한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북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유치, 한방자원산업화단지(상주), 인산소재산업화센터 건립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생약 및 한방 신약 개발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 예천 곤충엑스포를 계기로 곤충산업을 경북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곤충생태원 조성, 유용곤충개발센터 건립, 천적생산기업 육성사업 등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청정에너지 보급차원에서 북부지역 천연가스 배관망설치사업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신라·가야·유교문화권의 개발

신라·가야·유교문화권은 국내 최고·최대의 전통·문화 자원과 관광소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지역이 그러한 문화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지역의 문화자원 개발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국가적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된 각 지역의 문화자원을 네트워크화하고 문화관광의 시너지효과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민족의 역사자원인 3대 문화권(신라·가야·유교)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자연·문화·관광자원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경북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지원특별법」 제정

▸ 신라문화권 개발사업을 위해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민족정신 회복차원에서 황룡사 복원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과 연계해 국립 경주국악원 유치, 국제관광컨벤션센터 건립, 신라체험사절유택 관광자원개발, 천년문화체험콘텐츠사업, 보문관광단지 재개발, 뷰티풀 경관도시 조성, 첨단한옥호텔공원 조성, 대형왕릉 발굴, 해저호텔 건립 등의 관광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 4개 시도,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 개발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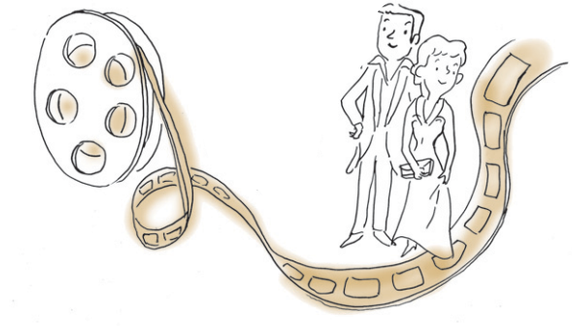
▸ 기존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이어 2011년에서 2020년까지 2단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북 영상 · 문학 특화지구 개발

지식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혜의 자연자원 · 문화관광자원 · 근대문학 등의 스토리텔링 자원이 풍부한 경북 북부지역은 영상과 문학산업의 대표적인 특화지역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권(이육사), 영양권(조지훈, 오일도, 이문열), 청송권(김주영) 등은 근현대문학의 역사적 산실이자 중심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영상산업 기반과 함께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부산권의 영상문화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경부축 영상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략 관점에서 영상과 문학을 경북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책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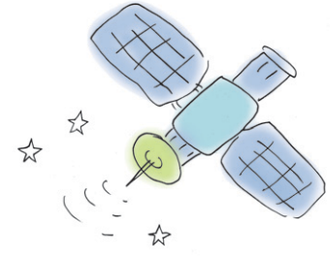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 백두대간·낙동강권 영상산업벨트를 구축하고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촬영세트장과 체험관, 영상관 등의 영상산업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경북 전체의 영상산업기반 및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 문화산업지원센터(안동), 경북 테마영상물제작지원센터(포항), 영남 영상문화콘텐츠 유통전문센터(구미), 고대 가야문화 드라마 세트장 건립(가야문화권 지역) 등을 연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안동·영양·청송권을 중심으로 근현대문학 특화지구를 지정, 개발하고 근현대문학 테마타운, 문학공원, 문학역사관과 교육관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륙해양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그동안 L자형 국토개발로 중부내륙과 동해안 지역의 SOC 개발 소외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러한 교통인프라의 소외가 지역 낙후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교통수요를 전제조건으로 한 경제성 논리에서 낙후지역의 개발과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측면에서의 SOC 개발이라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낙후된 중부 내륙지역과 동해안 및 동해안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형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공약

국도 확·포장 사업 조속 추진

- 상주~영덕간 동서 6축 고속도로, 동대구~경주~언양간 경부고속도로 확장,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기계~신항만 고속도로,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사업을 지역의 가장 중요한 SOC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봉화~울진간 국도 4차선 확장, 포항~안동간 국도 4차선 확장,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 영천~군위(우보)간 국도 4차선 확장, 고령~성주간 국도 4차선 확장 등 국도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완공하겠습니다.

